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 63, No. 2 (Feb. 2013) pp. 29-44 http://dx.doi.org/10.7233/jksc.2013.63.2.029

조선시대 원삼의 시기별 특성에 관한 연구

임 현 주 · 조 효 숙+
가천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 가천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A Study on the Periodic Characteristics of *Wonsam* in the *Joseon* Dynasty

Hyunjoo Lim · Hyosook Cho+
Instructor, Dept. of Clothing, Gacho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Gachon University+
(투고일: 2012. 9. 13, 심사(수정)일: 2012. 12. 27, 게재확정일: 2013. 1. 11)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periodic characteristics of *Wonsam* in the *Joseon* Dynasty. *Wonsam* include the *Danryeong*-shaped *Wonsam* in the beginning, the compound *Wonsam* in a period of transition and the stereotyped *Wonsam*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Wonsam* are divided into four stages. The first stage of the *Wonsam* is from the 15th to 16th century. The shape of *Wonsam* began to form and it was similar to one of *Danryeong* during this time.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first *Wonsam* included collars that looked like one of *Danryeong*, side pleats(called *Moo*) with multiple inner folds, straight cylinder-shaped sleeves, and a belt tied with the *Wonsam*. There were various fabrics that were used for the *Wonsam* from this stage. Second stage of the *Wonsam* is from the early 17th to mid 17th century. This period marked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of the *Wonsam* and it served as a stepping-stone to the development stage in the *Joseon* Dynasty.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itional *Wonsam* were a complex combination of the *Danryeong* and *Wonsam*. During this period, the *Wonsam* went through many changes and forms in a short period of time. Third stage of the *Wonsam* is from the mid 17th to early 19th century. The *Wonsam* was developed at this stage. The developed *Wonsam* went through a period of transition equipped with a stable form.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Wonsam* during this period included collars that faced each other, big and wide sleeves with multicolored stripes, *Hansam*, curve-edged side seam and the side pleats(*Moo*) with multiple inner folds had disappeared. It was a turning point from the single-layered clothes to double layered clothes and from dark blue to green color appeared at this time. The fabric patterns of this stage tended to consist of more simplified silk pattern. The fourth stage of the *Wonsam* is from the late 19th to 20th century. The *Wonsam* was expanded at this stage.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fabrics were typically used for the standard *Wonsam* and were divided into two types; as a ceremonial robe used in courts and a wedding ceremonial robe for the common people. Phenomena such as sewing of double-layered clothes as one and straight-edged side seam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developed into simpler and more practical fashion culture.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가천대학교의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Hyosook Cho, e-mail: sookch@gachon.ac.kr

Key words: color(색상), Danryeong(단령), fabrics(직물), Joseon Dynasty(조선시대), patterns(무늬), Wonsam(원삼)

Ⅰ. 서론

원삼(圓衫)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여성 예복의 하나로 궁중에서 민가에 이르기까지 착용범위가 넓고, 특히 조선 후기에는 혼례복으로 가장 많이 입혀졌다. 원삼(圓衫)은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전통복식의 하나로, 전통혼례가 서구식 웨딩드레스에 밀려 거의 사라진 오늘날에도 결혼식의 '폐백(幣帛)'이라는 절차에서 활옷과 함께 중요한 혼례복으로 자리 잡고 있는 복식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경제성장 및 한류열풍과 더불어 우리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통혼례 또한 품격 있는 이미지의 고급화된 문화상품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潮流)로 인해 활옷이나 원삼과 같은 특별한 전통예복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고조되며 그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원삼(圓衫)에 대한 새로운 재조명과 함께 보다 심도 있고 다각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복식사적인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원삼은 복식사(服飾史) 연구 초기부터 많은 선행연구[1]가 이루어졌지만 제도(制度)적인 측면의 문헌고찰 혹은 전세유물을 통한 형태 및 봉제방법을 중심으로 접근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형태의 원삼과 과도기를 거쳐 전형적인 원삼에 이르는 조선시대 원삼 유물을 모두 조사하고 조형성 및 직물의 종류와 무늬의 경향을 분석하여 기존의 연구와의 차별을 두고자 한다.

현재 원삼이라고 명명한 유물은 17세기 초반부터 출토되는데, 그 이전인 15세기 말경에서 17세기 초반까지 이어지는 여성 단령이 원삼의 초기 형태와 매우 관련 깊다. 최근 새롭게 출토된 조선시대 원삼 유물에서 과도기적 양상을 띤 형태가 발견되고 이와 관련성을 제기할 수 있는 조선 초·중기의 여성 단령 유물도 여러 점 발굴되고 있어 원삼의 기원과 제작 시기가 매우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단령에 대한 연구[2]를 바탕으로 여성 단령을 원삼의 초기형태로 보고 있다.

연구범위는 조선 초 15세기경부터 대한제국 말기 및 근현대로 이어지는 20세기까지이며, 연구대상은 궁중과 사대부를 비롯한 민가에서 사용했던 우리나라 출토 및 전래원삼과 해외박물관 소장 원삼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을 토대로 명칭과 유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유물을 분석하여 시기별 소재 및 조형특성을 정리하였다. 또한 문헌에 기록된 내용과 유물이 일치하는지 조사하였다. 유물 연구는 여성단령을 비롯한 원삼의 형태와 구성법, 소재와 무늬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유물연구에 이용한 자료는 각 분묘의 발굴조사 보고서 및 박물관에 기증된 유물을 정리한 유물기록카드와 전시도록 등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하였으며 실견이 가능한 복식유물들은 직접조사로 실증적 고찰을 하였다.

Ⅱ. 문헌으로 살펴 본 원삼의 시기구분

문헌자료를 근거로 조선시대 원삼을 크게 4기로 구분하였다. 시기별 문헌자료는 다음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기는 조선시대 초기인 15~16세기로 원삼을 분류하였다. 1기의 문헌적 근거는 양성지의 『눌재집(訥齊集)』,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유희춘의 『미암일기(眉巖日記)』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15~16세기 문헌에 기록된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원삼에 관한 사실은 첫째, 흉배가 달린 원삼을 착용하였다는 것[3]과 둘째, 원삼착용이 사치 금제 절목에 포함시킬 정도로 만연된 풍조였다는 점[4] 그리고 셋째, 남자의 단령을 여자 원삼으로 고쳐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그 형태가 단령과 유사하였다는 점[5] 그리고 마지막으로, 짙은 청색원삼이 존재하였으며 원삼감으로 단(緞)종류를 사용했다는 점[6]이다. 이는 모두 단령형 원삼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내용이다. 『눌재집(訥齊集)』에 양반부녀자들이 흉배(胸背)달린 원삼(圓衫)을 지어입고 다

〈표 1〉 조선시대 문헌을 기준으로 한 조선시대 원삼의 시기구분

구분	시 기	문 헌 자 료	용 도	명 칭
1기	15C～16C	『눌재집』『연산군일기』『미암일기』	일반적인 예복	단삼(團衫) 원삼(圓衫)
2기	17C초～ 17C중반	『신독재전서』『상례비요』『상례언해』 『의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가례와 상장례시 예복	
3기	17C중반～18C	『정조실록』『한중록』『병와집』『가례도감의궤』『가례원류』 『국혼정례』『상방정례』『가례집람』『송자대전』	가례와 상장례시 예복	원삼(圓衫)
4기	19C～20C	『규합총서』『가례도감의궤』『거가잡복고』『덩미가례시일긔』 『의대불긔』『의복불긔』『임원십육지』『가례시절차』 『사례편람』『증보사례편람』『경빈예장소등록』『고종실록』	가례(길례)시 봉작(봉비)시 상장례시 예복	원삼(圓衫)

니는 것이 유행처럼 번진 기록으로 미루어 당시 여자 원삼에 흉배를 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의 사치금제절목의 하나로 원삼을 금하였고 사라능단 값이 뛰어올라 가난한 선비가 여자의 원삼으로 단령(團領)을 만들어 입고 조정의 공식 석상에 참석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기록 등으로 보아 1400년대에 이미 원삼이 입혀졌고, 그 형태는 남자의 단령과 유사한 형태로 추정해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된다. 또 조선중기의 개인문집인『미암일기(眉巖日記)』에 나타난 '원삼(圓衫)'이라는 용어는 문맥상 익숙하게 사용된 일반적인 단어였음을 시사한다. 다만 당시『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단삼(團衫)'이라는 명칭도 함께 등장하고 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문종 3년(1450)부터 광해군 9년(1617)에 걸쳐 여자의 단삼(團衫)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기록된 단삼은 대부분 중국에서 보낸 물목에 포함된 예복으로 색상은 녹색(綠色)과, 대홍색(大紅色)이 기록되어 있었다. 단삼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는 둥근 깃과, 문헌에 기록된 직금(織金)으로 스란장식이 된 어깨와 소매, 소매모양은 통수이거나 색동을 의미하는 채수(彩袖)가 달렸고, 화문 옷감을 사용한 점 등 구체적으로 묘사된 형태로 미루어 볼 때 원삼(圓衫)과 같은 맥락의 복식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문헌의 내용들을 근거로 원삼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은 '단삼'과 '원삼'이 혼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조선시대 초기를 원삼 1기로 분류하였다.

2기는 17세기 초에서 17세기 중반에 걸쳐 있다. 이 시기에는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사회상이 크게 변하여 복식에도 이같은 변화가 반영된다. 문헌적 근거로는 1600년『의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宜人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를 비롯하여『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와 김집의『신독재전서(愼獨齋全書)』, 1621년 신의경(申義慶)의『상례비요(喪禮備要)』, 김장생(1548～1631)의『가례집람(家禮輯覽)』,『송자대전(宋磁大全)』,『상례언해(喪禮諺解)』등을 들 수 있다.

이때 문헌에 보이는 원삼의 명칭은 '단삼'과 '원삼'이 혼용된다. 15세기부터 확인된 원삼의 명칭은 1600년『의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宜人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에 '원삼(元衫)' 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그리고 1627년『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에 '단삼(團衫)'이라는 용어가 1건 등장할 뿐 그 외의『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서 '단삼'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원삼(圓衫)'으로 기록된다.『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에 기록된 단삼(團衫)은 용도는 물론 겉감과 안감의 색상과 문양 및 옷감의 소요량까지 다른 가례의 원삼(圓衫) 기록과 일치하여 원삼과 같은 옷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2기에는 단삼과 원삼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지만 그 이후 원삼이라는 용어로 정착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양란 이후의 복식체계의 혼동으로 인해 원삼의 형태에도 과도기가 나타나는 것처럼 명칭 또한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김집(1574~1656)의 『신독재전서(愼獨齋全書)』에도 여자의 장례제도에 대한 문답 내용 중 "우리나라에서는 원삼에다 대대(大帶)로 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1621년 『상례비요(喪禮備要)』에 여성 습용 상의(上衣)로 원삼을 기록하고 있어 상장례(喪葬禮)에 사용되었던 원삼의 용도를 알 수 있다.

1623년 『상례언해(喪禮諺解)』에는 부인원삼에 대한 설명과 원삼 및 대대의 도식화가 있는데, 원삼은 푸른 깁과 검은 사 2폭으로 만드는데 길이는 몸과 같게 앞이 3-4치 짧고 깃은 심의의 깃처럼 하며 깃 모양이 대금형으로 1기의 단령과 유사한 형태의 교임형 깃모양과는 달라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문집인 『송자대전(宋磁大全)』[7]에는 예복에 대한 당대 유학자들과의 문답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요즘 부인들은 혼사(婚事)와 상사(喪事)에 다 원삼(圓衫)을 입는데 이것이 과연 예(禮)에 합당합니까?"[8]라고 묻는 박만선의 편지 글이 있다. 이를 통해 17세기 원삼(圓衫)이 혼례복과 상례복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기는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으로 문헌에는 15~16세기보다 구체적으로 예복의 용도 및 옷감 등이 설명되어 있어 상황별로 원삼을 살펴볼 수 있다. 3기의 문헌으로는 1774년 이형상(1653~1733)의 『병와집(甁窩集)』, 1749년 『국혼정례(國婚定例)』, 1750년 『상방정례(尙房定例)』, 『사례편람(四禮便覽)』, 『한중록(閑中錄)』 등 이 시기에는 원삼이 기록된 문헌자료가 풍부한 편인데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국혼정례(國婚定例)』, 『상방정례(尙房定例)』 등에 기록된 가례 절차시 사용되었던 혼례복과 『의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宜人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상례비요(喪禮備要)』, 『상례언해(喪禮諺解)』등에 기록된 여상(女喪)의 습의(襲衣)로 사용되었던 원삼(圓衫)기록이 있어, 17~18세기의 원삼의 용도 및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서 흥미로운 점은 원삼에 사용된 직물이 17세기 말까지는 운문단으로 기록되다가 18세기를 기점으로 화문단으로 변화되어 18세기 전반기까지 기록되고 이는 다시 18세기 후반 1762년 정조효의후(正祖孝懿后) 가례를 기점으로 폭(幅)이 넓은 견직물로 추정되는 '광적(廣的)'과 '화화주(禾花紬)'로 바뀌고 있다는 것으로 왕실의 직물사용에도 변화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749년 『국혼정례(國婚定例)』에는 후궁인 숙의(淑儀)의 가례시 원삼의 겉감으로 아청 광사 1필과 안감으로 대홍광사 1필을 기록하고 있으며, 1750년 『상방정례(尙房定例)』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내명부 종2품인 숙의(淑儀)의 가례시 원삼이 기록되어 있고 간택에는 이보다 자세히 원삼의 대대 의차로 대홍 반폭 8척과 부금에 사용되는 첩금 1속이 기록되어있다. 1774년 『병와집(甁窩集)』에 내명부 상복(上服)이자 혼례복이며, 여상(女喪)의 상복으로 초록원삼을 사용한다는 기록[9] 『사례편람(四禮便覽)』진습의조(陳襲衣條)에 여성 습용 상의(上衣)로서의 원삼 기록[10], 『한중록(閑中錄)』에 혜경궁 홍씨의 모친이 원삼을 입었다는 기록도 확인된다.

4기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의 국말과 근대에 해당하는 원삼으로 조선 원삼의 말기로 보았다. 이 시기의 문헌적 근거로는 1809년 『규합총서(閨閤叢書)』, 1819년 『문조신정후가례도감의궤(文祖神貞后嘉禮都監儀軌)』, 1835년 『임원경제십육지(林園經濟十六志)』, 1841년 『거가잡복고(居家雜服考)』, 1847년 『뎡미가례시일긔』, 1882년 『순종순명후가례도감의궤(純宗純明后嘉禮都監儀軌)』, 『의복불긔』 『의대불긔』, 『가례시절차』, 『사례편람(四禮便覽)』,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 『경빈예장소등록(慶嬪禮葬所謄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을 들 수 있다. 이 문헌자료에 기록된 원삼의 용도는 가례나 길례 등의 혼례복과 비빈의 봉작이나 봉비시 예복으로 또한 상장례시 염습의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 시기의 문헌에는 원삼의 형태묘사는 물론 각 부분의 치수 및 봉제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세속(世俗)에 확고히 자리 잡은 제도로서 정착된 원삼을 다루고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문헌을 근거로 원삼의 시기를 4기로 구분한 결과, 원삼의 시기구분에 있어 문헌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유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여성단령과 출토원삼 그리고 전세원삼으로 대별되는 유물을 중심으로 분류했을 때는 1기와 2기의 분기점이 17세기 중반이었다. 그러나 1기와 2기의 분기점을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17세기 초 『상례언해(喪禮諺解)』에는 나와 있는 부인원삼과 대대의 도식화에서 깃 모양이 대금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남자 단령으로도 고쳐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단령과 유사한 형태였던 15~16세기 깃 모양과는 이미 달라져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한 이유는 다음 단원인 유물 고찰을 통한 시기별 특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유물고찰을 통한 원삼의 시기별 특징

유물자료를 근거로 조선시대 원삼을 크게 4기로 구분하였다. 각 시기에 해당하는 유물은 〈표 2〉와 같이 총 65점을 고찰하여 정리하였다.

1. 1기

1) 단령형 원삼

1기는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유물이 발견된다. 이 시기는 조선시대 원삼의 초기모습으로 단령형 원삼이라는 형태적 특징을 지닌다.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단령은 모두 20여점 인데 그 중 단령형 원삼은 15점이 조사되었다. 여성 단령 유물은 〈그림 1〉[11]과 같이 15세기로 추정하는 인천석남동 무연고 묘의 단령을 시작으로 대부분 16세기와 17세기 전반에 집중되어 있다. 유물상태는 손상이 거의 없이 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그림 2〉[12]와 같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이 대부분이다. 1기에는 여흥민씨(1586~1656)를 포함시켰는데, 여흥민씨의 수습된 유

〈표 3〉 시기별로 구분한 조선시대 원삼 유물과 명칭

시 기 구 분		유 물	수량
1기	15C~16C	인천석남동 무연고 묘, 강릉김씨, 파평윤씨, 평양이씨, 의인박씨, 죽산이씨, 연안김씨, 청주한씨, 경기도 광주 출토 순흥안씨, 장기정씨, 국립중앙박물관 무명씨, 전주이씨,충주박씨, 평산신씨, 여흥민씨	15점
2기	17C 초중반	수원 이의동 안동김씨, 전주최씨, 해남윤씨 묘역 묘주미상, 동래정씨, 전주이씨(류성구배위), 죽산이씨	6점
3기	17C후반~19C전반	사천목씨, 해평윤씨, 무연고묘(단국대석주선기념박물관), 청송심씨, 안동권씨, 한산이씨(충북대박물관), 이단하 부인, 화순옹주	8점
4기	19C후반~20C	동궁비, 전황후, 광화당이씨, 김병기 부인, 덕온공주, 조대비, 정온가, 전주이씨(충북대박물관), 선산김씨, 한산이씨(김수근일가), 김수근 일가 3점, 덕혜옹주, 의왕비 연안김씨, 영왕비, 브루클린 박물관원삼, 개성원삼, 민간원삼 7점 등	37점
계			65점

〈그림 1〉 인천석남동 출토 무연고묘 단령형 원삼
- *인천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p. 6.

〈그림 2〉 연안김씨 단령형원삼
- *연안김씨 묘 출토복식*, p. 276.

물 중에는 단령이 없으나 보고서[13]의 이장(移葬)사진에 흉배와 흰색 한삼이 달린 단령을 착용하였기 때문이다.

2) 단령형 원삼의 특징

15~16세기에 해당하는 1기 원삼의 가장 큰 특징은 단령의 형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옷감이 모두 홑으로 조사되어 다른 받침옷을 함께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특징은 품과 길이 등 치수와 소매·무·도련의 형태, 고름과 대대(大帶)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품이 대체로 넉넉하다. 때로는 매우 크게 제작되기도 하였다. 품이 최대 106cm에 이르는 사이즈는 풍성한 실루엣의 치마와 여러 겹의 상의(上衣) 위에 입는 예복(禮服)으로써 착용되었음을 의미한다. 품이 매우 큰 옷 중에는 등 쪽에 매듭단추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 단추를 채우면 품을 줄일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사이즈와 실루엣을 조정해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전단후장(前短後長) 혹은 그와는 반대인 전장후단(前長後短)의 특징이 나타난다. 앞뒤 길이차가 큰 전단후장형태는 후대의 원삼으로 발전하는 예복의 기능을, 길이차가 적은 전장후단의 경우는 초기에 더 많이 나타나는데, 임신·출산 등 여성의 급격한 체형변화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셋째, 소매모양이 직배래의 통수(筒袖) 형태이다. 소매에 한삼(汗衫)이 달렸거나 혹은 달았던 흔적이 발견된다. 넷째, 무의 모양이 남성 단령과 달리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다. 대부분 여러 겹의 주름이 마주하는 안팎주름 형태를 하고 있다. 다섯째, 대대(大帶)가 함께 출토되었는데 원삼의 대(帶)와 매우 유사하다. 여섯째, 도련에 선단이 둘려있는 모습도 원삼과 매우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단령형 원삼의 절반 가량에 흉배가 달려있던 점 역시 평상시가 아닌 특별한 날 예를 갖추기 위해 입었음을 뒷받침한다.

단령형 원삼의 전반기에는 깃, 무와 소매의 형태 등에서 전형적인 조선 중기 여성예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단령형 깃과 앞뒤로 여러 겹 접은 무, 통수에 한삼이 달린 점 등이다.

조선시대 원삼의 초기형태인 1기 원삼에 사용된 직물의 종류와 무늬를 정리하였다. 원삼 1기의 공통점은 모두 출토된 유물이라는 점인데, 그러한 이유로 원래의 색상을 찾아보기 어렵게 퇴색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점의 단령형 원삼 유물에는 아청색이나 녹색의 염색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에서 당시 원삼에 사용한 색을 추정할 수 있다. 당시 문헌인 1572년 『미암일기(眉巖日記)』의 기록에도 '아청단자원삼(鴉靑緞子圓衫)'으로 원삼의 색이 기록된 사례가 있어 유물과 함께 이를 뒷받침한다.

1기 원삼에 사용된 직물을 조사한 결과, 무문직물과 유문직물의 비율이 각각 44%와 56%로 무늬가 있는 직물의 비율이 더 큰 편이었다. 무늬가 없는 직물 중에는 견직물과 면직물이 있는데, 무문단(4점)과 무명(2점), 토주(1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무늬가 있는 직물로는 연화만초무늬가 있는 화문단, 운문단, 화문사, 운문사 등이 조사되었다. 신분에 따라 직물 사용의 경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자 하였으나 신분을 알 수 없는 묘주의 무명단령과 강릉김씨의 면포단령 이외에는 모두 고급옷감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초기 원삼에는 대부분 무늬 있는 사(紗)와 단(緞) 종류의 고급직물을 사용하였고 무늬의 종류는 연화만초문이나 운문이 절반을 차지했는데, 무늬 없는 단과 주(紬)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때로는 소박한 직물을 사용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착용자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무명단령과 단국대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승정원 좌승지 배위인 강릉김씨의 면포 단령의 사례로 보아 고급직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다를 뿐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단령형 원삼이 여성의 필수 예복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14]에서 16~17세기 동시대 남녀단령의 형태특징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여성 단령만의 특성 즉, 정체성(Identity)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형특성은 용도 곧 필요성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크므로 여성 단령의 조형성 연구를 통해 정체성이라는 다소 형이상학적 의미를 포함한 개념까지 확장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체성의 핵심은 용도와 특성 그리고 명칭 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성 단령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정체성의 사전적 의

미는 변하지 않는 본질적 특성이다. 발생에서 여러 변천과정을 거쳐 현재의 원삼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 여성 단령은 분명 형태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거듭하였다. 그러나 여성 단령의 소재나 형태가 부분적으로 달라지더라도 고유하고 본질적인 특성만은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성 단령은 남성 단령과는 분명히 다른 고유한 특질(特質)을 지닌 독립적인 아이템으로서 연구의 가치가 충분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 단령의 정체성은 원삼으로 볼 수 있다.

2. 2기

1) 복합형 원삼

2기는 17세기 초,중반에 해당하며 다른 시기에 비해 짧지만 가장 변화가 심한 시기로 유물은 6점을 정리하였다. 특별히 17세기 전반기에는 단령형 원삼이 전형적인 원삼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단령과 원삼의 특징을 동시에 지닌 독특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를 '복합형 원삼'이라 칭하였다. 형태면에서 원삼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2기는 원삼에서 깃과 무의 형태, 도련 그리고 소매의 유형에서 다양한 양식이 혼재하는 시기이며, 전시대의 답습과 함께 새로운 양식의 유행을 예고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사회적으로 혼란기를 겪으면서 발생한 복식 전반에 걸친 변화의 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령형 원삼의 소매와 길의 형태가 조선후기원삼과 유사해지며 도련과 옆선 및 무의 변화가 뚜렷해지는데 죽산이씨(임란이전 추정), 〈그림 3〉[15]의 안동김씨 (16세기 말~17세기 초 추정), 전주최씨(17세기 전반 추정), 해남윤씨 묘역의 묘주미상(17세기 전반 추정), 전주이씨(1620~1633년), 동래정씨(1567~1631년) 등의 원삼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전주 최씨(17세기 전반추정)의 유물은 앞길에만 무가 있고 뒷길에는 무가 없는 독특한 형태인데, 여러 번 주름잡아 안쪽에서 고정하였으며, 겨드랑이에는 작은 삼각무도 달려있다. 이는 1기 발생기 원삼에서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점이다. 소매 끝부분은 소실된 상태이지만 한삼을 달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보다 결정적인 과도기형 원삼으로 경기도 출토 전주이씨(1620~1633)원삼은 〈그림 4〉[16]와 같이 완전한 교임형 단령깃에 전형적인 원삼의 색동과 한삼이 달린 두리소매에 옆선은 겨드랑이 아래로 트여있다. 이 유물이 발견되면서 단령형 원삼이 조선 후기의 원삼의 형태로 변천되는 모습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단령형태의 원삼(단삼)이 조선 후기의 원삼처럼 변천되었다는 주장의 확실한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다. 〈그림 5〉[17]와 같이 동래정

〈그림 3〉 수원 이의동 안동김씨 묘 원삼
- *수원 이의동 안동김씨 묘 출토 복식 조사보고서*, p. 98

〈그림 4〉 전주이씨(류성구 배위) 원삼
- 경기도박물관 특별전'이승에서의 마지막 치장'포스터, 필자 촬영

〈그림 5〉 동래정씨 원삼
- *김확 합장묘 출토복식*, p. 336.

씨(1631년) 원삼은 깃이 대금형이지만 매우 둥근 형태의 깃모양이 단령과 유사하며 소매모양과 한삼이 달려있는 형태가 매우 독특하다. 이러한 과도기형 원삼이 지나고 17세기 후반부터는 전형적인 원삼으로 이행하는 본격적인 발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2) 복합형 원삼의 특징

복합형 원삼은 유물의 수량이 많지 않지만 원삼의 형태가 단령형에서 출발하였으며 점차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원삼으로 변화되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례들이다. 1기 원삼에서는 깃, 무와 소매의 형태 등에서 전형적인 조선 중기 여성 단령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17세기 초 중반의 2기 원삼에는 단령이 원삼으로 변화하며 다채로운 양상을 띤 복합형 원삼이 출토되었다. 즉, 단령과 원삼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보이는 과도기의 특징이 이때 나타난다.

이 시기의의 복합형 원삼을 통해 단령형 원삼이 단순히 남성 단령을 고쳐 입은 복식이 아닌 원삼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확인할 수 있다. 복합형 원삼의 조형특징은 첫째, 도련의 모양이 직선에서 곡선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확인된다. 앞길과 뒷길의 도련이 둥글게 처리되어 약간 곡선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전북 익산에서 출토된 죽산이씨와 전주최씨 그리고 경기도 광주 해남윤씨 묘역의 묘주미상 단령은 뒷자락과 도련의 모습이 원삼의 뒷모습과 매우 닮아있다.

둘째, 직배래의 통수형태였던 소매모양에 변화가 생기며 원삼에 색동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붕어배래형이나 대수형 등 소매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직배래의 통수형 소매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한삼을 다는 형태에도 다양한 변화가 포착되는데 동래정씨 원삼에는 수구보다 매우 좁은 폭의 한삼이 달린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발생기까지 나타나지 않던 색동장식이 과도기의 전주이씨 원삼에 처음 나타난다.

셋째, 무의 모양이 단령형 원삼과 달라지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단령형 원삼은 대부분 여러 겹의 주름이 마주하는 안팎주름 형태를 하고 있는데 과도기의 복합형 원삼은 앞길에만 무가 있으며 뒷길은 무가 없이 안단을 둘러 원삼의 도련과 같은 형태로 전환이 시작된다. 그 예로, 전주 최씨(17세기 전반추정)의 원삼은 앞길에만 무가 있고 뒷길에는 무가 없는 독특한 형태인데, 여러 번 주름잡아 안쪽에서 고정하였으며, 겨드랑이에는 작은 삼각무도 달려있다. 이는 발생기 원삼에서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점이다. 소매 끝부분은 소실된 상태이지만 한삼을 달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17세기 전기 해남윤씨 묘역의 묘주 미상 원삼은 단령과 원삼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매우 주목되는 유물이다. 깃은 둥근 단령이지만 무의 형태가 일반적인 여성 단령과 달리 원삼처럼 양 옆이 진동 아래부터 깊이 트인 형태이고, 한삼이 달렸으며 원삼대(帶)로 추정되는 대(帶)가 함께 출토된 점 등 단령이 원삼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유물들은 여성 단령과 원삼과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로서 주목할 만하다. 두 사례 모두 17세기 전반기로 추정하고 있으나 변화되는 형태로 보아 전주 최씨 단령이 해남윤씨 묘역의 것보다 시대가 앞선 것으로 보인다. 동래정씨 원삼의 경우에는 삼각무가 달리고 그 이후에는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복합형 원삼까지는 홑옷으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홑원삼 안에 별도의 받침옷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기 원삼부터는 겉감과 안감이 한 벌로 구성된 겹옷이 나타난다.

다섯째, 깃 모양은 대부분 교임의 단령 깃을 하고 있으나 둥근 대금형 깃으로 깃의 변화가 시작된다. 이는 동래정씨(1567~1631년)의 원삼에서 볼 수 있는데 흡사 단령과 같은 둥근 형태의 깃인데 교임이 아닌 대금형이므로 여밈이 앞에서 이루어진다.

여섯째, 원삼의 대(帶)와 매우 유사한 대(帶)가 함께 출토되었다.

마지막으로, 복합형 원삼의 수량이 적긴 하지만 단령형 원삼의 절반가량 흉배가 달려있었던 것과는 달리 1점에만 흉배가 달렸다는 점이다. 이는 원삼이 일반화되는 경향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추후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복합형 원삼에 사용된 직물은 운문단(雲紋緞), 운

보문단(雲寶紋緞), 소화문단(少花紋緞)과 토주(吐紬) 등으로 조사되었다. 과도기에는 유문단과 무문주 등 직물 사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선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2기에서는 발생기의 단령형 원삼이 발전기의 안정형 원삼으로 전환되기 전 다양한 과도기적 모습을 거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1기에 나타났던 단령형 원삼이 사라지는 듯 보이나, 단령과 원삼의 특징을 동시에 지닌 과도기형태의 원삼이 발견됨으로 실제적으로 여성단령이 원삼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따라서 여성단령이 원삼의 전형이며, 당시 명칭 또한 '원삼'이었으므로 이제는 학계에서도 '여성단령'이라는 명칭보다는 '단삼' 또는 단령형 '원삼'으로 칭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3. 3기

1) 안정형 원삼

3기는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로 과도기의 혼란을 겪고 원삼의 유형에 있어서 안정적인 형태를 찾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단령과 원삼의 복합형이 존재하던 과도기를 지나 안정적인 형태로의 본격적인 발전을 이룬다. 이 시기 원삼은 출토 유물과 전세유물이 함께 나타난다. 사천목씨(1657~1699년), 해평윤씨(1660~1701년), 〈그림 6〉[18]의 청송심씨(1683~1718년), 안동권씨(1664~1722년), 한산이씨(1712~1772년), 전주이씨(1722~1792년) 유물 등 17~18세기의 출토원삼과 이단하부인(1680년경), 화순옹주(1740년경), 덕온공주(1837년경), 부르클린 박물관의 19세기 녹원삼,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덕혜옹주(추정) 등의 전세원삼이 이에 해당한다. 안정형 원삼의 조형적 특징 중 옆선과 도련선이 곡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두드러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형특성은 4기의 특징에서 설명하겠지만 원삼의 착용이 확대되는 19세기 후반부터 직선형으로 변화되는 특징을 나타난다. 또한 구성법에 있어 3기에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가 생긴다. 그것은 2기까지는 홑옷이던 원삼이 3기에서는 겹옷의 형태로 등장하는 점인데 이는 별도의 받침옷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원삼 착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화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7세기말 이단하부인의 원삼에서 겹옷이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동시대의 사천목씨나 해평윤씨의 원삼은 아직까지 홑옷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18세기 초반부터는 본격적으로 겹원삼이 나타나는데 〈그림 7〉[19]과 같은 안동권씨(1664~1722년) 원삼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원삼의 구성이 겹으로 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680년경으로 추정하는 이단하부인의 원삼이 더 후대로 내려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으며, 겹원삼이 등장하는 시기를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로 볼 수 있다.

2) 안정형 원삼의 특징

3기 원삼에는 과도기의 혼란스러움과 다양성을 지

〈그림 6〉 청송심씨원삼
- *조선시대 여인의 옷*, p. 22.

〈그림 7〉 안동권씨 원삼과 대
-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조사보고서*, pp. 247-248.

나 원삼의 형태와 소재가 안정적으로 정리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시기는 출토유물의 비중이 크며 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정형 원삼의 조형적 특징은 첫째, 깃 모양이 대금형의 원삼 깃으로 유형을 확고히 한다. 2기의 복합형 유물에 둥근 대금형 깃이 나타나지만 불안정한 형태였다면 3기 원삼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대금형 깃으로 발전을 이룬다.

둘째, 안정적인 형태의 두리소매가 등장하는데 대부분 두 줄 색동과 한삼이 달린 형태로 자리를 잡는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로 해평윤씨 원삼에는 세 줄 색동과 한삼이 달리며, 안동권씨 원삼에는 색동 없이 바로 한삼이 달려 있다.

넷째, 도련선이 당의의 곡선과 같은 형태로 발전기 원삼만의 특징적인 곡선미가 생긴다. 이러한 조형적 특징은 4기가 되면 점차 양 끝만 뾰족하게 처리된 직선형의 도련으로 변화한다.

다섯째, 전단후장(前短後長) 양식이 강화된다. 앞 시기에도 전단후장 양식이 나타나지만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3기 원삼부터는 앞뒤길이의 차가 확실해지며 하나의 양식으로 자리잡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녹원삼이 등장한다. 앞 시기 원삼은 대부분 출토유물이라 정확한 색상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주로 아청색의 염료가 확인되며 당시 문헌의 아청단자원삼이 기록으로도 청색 원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확실히 초록색 원삼 유물이 많이 발견된다. 즉, 원삼의 형태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면서 원삼의 색상도 초록색으로 정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곱째, 구성법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 즉, 3기 초에 홑원삼과 겹원삼이 동시에 존재하다가 18세기 초 안동권씨 원삼부터는 겹원삼으로 자리를 잡는다. 이는 발전기의 안정형 원삼부터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으로 1, 2기까지는 원삼의 구성이 홑옷이었는데 3기로 오면서 겉감과 안감이 존재하는 겹옷으로 바뀐다. 17세기 말 이단하 부인의 원삼에서 처음으로 겹원삼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17세기 말 사천목씨나 18세기 초 해평윤씨의 원삼은 홑옷으로 수습당시 홑원삼 안에 당의와 저고리 두벌을 입었던 사례가 확인되었다. 바느질 방법은 겉감, 안감에 각각 안단을 대고 두벌의 홑옷으로 봉제한 뒤 군데군데 징거 한 벌로 제작하였다.

안정형 원삼에 사용된 직물은 무늬가 있는 유문직물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다. 동시에 무늬가 없는 직물의 비율이 줄고 무문직물의 종류는 단직물로 국한된다. 무늬는 화문 그 중에서도 연화문의 비중이 크고 그 외 봉황, 운문, 도류불수, 수자, 호로, 박쥐문 등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수복도류불수무늬는 17세기 말 원삼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1680년경 이단하부인의 원삼에서 나타난다.

이시기에 해당하는 문헌 중 1762년 2월(영조 38)의 왕세손빈인 『정조효의후 가례도감의궤』에는 초록원삼이 사용되었으나 옷감의 무늬나 요척 표시 없이 '초록광적'으로만 기록되어있으며 1759년 영조정순후의 가례를 시점으로 원삼의 소재가 '단(운문, 화문)'에서 '주(화화주, 광적)'으로 변하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4. 4기

1) 정형화된 원삼

4기는 조선말기 19세기부터 20세기에 해당하며 원삼의 형태와 소재 및 문양이 매우 정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시기의 유물은 1~3기의 출토유물과는 달리 대부분 전세(傳世)된 유물이라는 점이 특징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온양민속박물관의 안동김씨 분묘의 출토원삼 4점은 착장자의 생몰년과 원삼의 형태가 모두 19세기 말에서 20세기의 특징을 지녔으므로 4기에 포함시켰다. 확대기 원삼은 착용자의 신분과 조형적 특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궁중과 사대부 부인들의 예복으로 사용했던 원삼과 민가(民家)에서 서민들의 혼례복으로 입었던 원삼이다. 이렇듯 조선 후기로 가면서 원삼은 궁중 여성 및 사대부 부인의 예복(禮服)이자 서민들의 혼례복으로 형태적 이분화(二分化)를 이루며 착용되었다.

궁중 원삼 자료로 역대 국혼기록인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 의하면 왕비용 원삼은 없고 왕세

자빈과 왕세손비의 녹원삼이 있으며, 실제로 왕자비나 공주, 그리고 외명부와 같은 높은 신분에서는 녹원삼을 예복으로 입었다. 그러나 1897년 대한제국 선포 후에는 왕비를 황후로 격상시켜 부르며 황원삼을 입도록 하고 황태자비는 홍원삼을, 그 이하의 신분에서는 녹원삼을 입도록 하였다. 국말 궁중에서는 노의, 장삼 등 다양한 종류의 예복이 원삼으로 집약, 일원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궁중원삼의 일반적인 형태는 뒷길이 앞길보다 길고, 넓은 두리소매를 달았으며 소매 끝에 색동과 백한삼(白汗衫)을 연결하였다. 황후, 황태자비, 왕비, 세자빈은 원삼의 양쪽 어깨와 길의 가슴과 등에 원형의 용보(龍補)를 부착하였으며 왕족이나 사대부 부인은 사각형의 봉황이나 학 흉배를 부착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조선 말기 왕실의 원삼에는 어깨와 소매상단, 앞뒤 길의 중앙과 스란 부분에 부금이나 직금의 방법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는데 신분에 따라 용문, 봉문, 화문으로 문양을 달리하였으나 예외의 경우도 있다.[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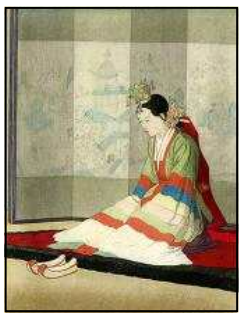
민가(民家)의 혼례용 원삼은 왕실 복식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직금과 금박으로 장식한 궁중원삼과 달리 민가에서는 금(金)장식이 배제되고 대신 소매에 색동의 수가 많아지며 직선미가 돋보이는 단순한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민가의 원삼은 지역적 특색과 가정형편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화하기에 실제로 다양한 소재와 장식기법이 존재했다.

조선시대 17~18세기에는 혼례복의 구분이 뚜렷하게 존재했다. 본 예식인 동뢰연에는 신부의 예복인 활옷 즉, 홍장삼을 입었고 폐백에 해당하는 현구고례에는 부인의 예복인 원삼을 입었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서민들은 이를 장만하기가 쉽지 않아 필요한 복식을 대여해 입는 대의(貸衣)풍속이 있었다. 빌려 입을 때에도 활옷보다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고 구하기 쉬운 원삼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서민들 사이에 원삼이 혼례복으로 확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로 1930년대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기사에는 〈그림 8〉[21]과 같이 원삼을 대여해주는 광고가 발견되며, 〈그림 9〉[22]와 같이 20세기 초 실제로 원삼을 입고 찍은 결혼사진을 볼 수 있다. 또한 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 1887~1956)는 〈그림 10〉[23]과 같이 서양인의 눈에 비친 1920년대 한국의 풍속을 여러 점의 목판화로 남겼다. 이렇듯 원삼은 궁중 여인들이나 사대부 부인들의 예복뿐만 아니라 민가에 이르기까지 착용이 확대되면서 민가의 혼례복으로 즐겨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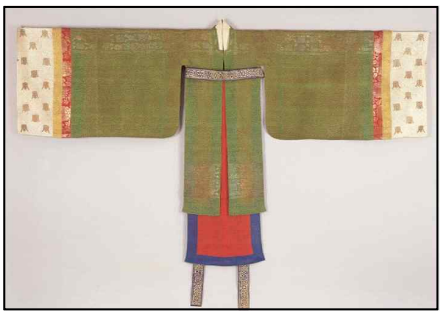
4기 원삼에는 순정효황후의 홍원삼(동궁비 원삼)과 황원삼, 광화당 원삼, 김병기 부인 원삼, 덕온공주 원삼, 조대비가 하사한 금직 녹원삼, 덕혜옹주 원삼, 〈그림 11〉[24]의 의왕비 연안김씨 원삼, 영왕비 원삼 등 왕실 양식을 따른 궁중원삼이 있다. 그리고 민가에 전해지는 혼례용 원삼으로는 단국대 석주선 기념박물관의 원삼과 〈그림 12〉[25]의 정온가 화문갑사원삼, 경운박물관의 개성원삼,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안동민속박물관의 원삼 등이 있다. 확대기 원삼은 궁중 및 반가의 유물 15점과 민가의

〈그림 8〉 혼구대여 광고
- 대한매일신보, 1935년 2월 6일자

〈그림 9〉 혼례사진
- *민족의 사진첩*, p. 112.



〈그림 10〉 1930년대 신부원삼
- *머리에서 발끝까지*, p. 154.



〈그림 11〉경운박물관 의왕비 원삼
- *근세복식과 우리문화*, p. 129.

〈그림 12〉 정온가 화문갑사 겹원삼
-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2 복식 · 자수편*, p. 211.

유물 28점을 합하여 총 43점의 원삼을 조사하였다.

2) 정형화된 원삼의 특징

4기는 앞 시기의 안정화된 원삼의 양식이 좀 더 정형화되고 궁중과 반가에서 주로 예복으로 착용하던 원삼이 민가의 혼례복으로까지 확대되었다. 4기에는 조선 말기 궁중과 민가에 내려오는 전세유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19~20세기의 근대유물의 비중이 높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19세기 말 의친왕비, 조대비의 녹원삼(綠圓衫)과 순정효황후(1906년)의 홍원삼(紅圓衫), 윤황후(1919년)의 유품으로 전해지는 황원삼(黃圓衫)을 비롯한 궁중 원삼과 20세기 초 다채로운 서민의 혼례용 원삼들이 있다. 이 시기의 원삼은 앞 시기의 출토유물에 비해 색상 및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조형적인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절제된 화려함과 품격이 깃든 궁중 원삼과 형태는 단순하지만 다채롭고 개성 있는 근대의 민가 원삼으로 원삼의 2분화(二分化)가 이루어진다.

4기 원삼의 특징은 첫째, 길이 면에서 궁중원삼은 전단후장형으로 길이가 매우 긴 특징을 보이는 반면 민가의 원삼은 길이가 짧은 편이다.

둘째, 궁중원삼은 소매가 매우 넓고 길며 두 줄의 색동과 한삼이 달리는 반면, 민가원삼은 색동의 수가 5줄에서 7줄 등 특별히 정해진 양식 없이 색동이 많이 달리는 특징이 있다. 이는 직금이나 부금장식으로 직물의 화려함을 더하였던 궁중원삼과 달리 금장식에 제약이 있었던 서민용 원삼의 독특한 장식기법으로 해석된다.

셋째, 원삼의 옆선과 도련의 형태가 점차 직선형으로 변화된다. 모서리가 뾰족하며 유려한 곡선을 이루던 3기의 도련과는 달리 끝만 살짝 올라간 형태로 옆선과 도련이 직선형으로 바뀐다. 이러한 특징은 민가의 원삼에서 더욱 강화되는데 후대로 갈수록 끝도 뾰족하지 않은 완전한 직선으로 길의 형태가 직사각형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넷째, 궁중 원삼의 특징 중 하나로 안단에 반드시 남색 혹은 청색 선을 둘렀다는 점이다. 그러나 민가에서는 홍색선을 안감에 두르거나 바깥에 두른 사례가 발견되며 대부분 선을 두르지 않은 원삼이 많았다.

다섯째, 구성법에 있어서 3기 초 홑옷과 겹옷이 공존하던 것과 달리 4기 원삼에는 겹 원삼이 정착된다. 예외적인 경우로 궁중의 흑장삼의 용도로 추정되는 19세기 흑원삼만 홑이다.

여섯째, 원삼 바느질 방법으로 간소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궁중 원삼은 매우 후대까지도 선단이 2개로 겉감과 안감에 각각 달린 형태로 유지되며 가지런히 공그르기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간단한 방법의 봉재가 이루어지는데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의 왕비녹원삼은 2개의 선단을 달기는 하였으나 안팎을 겹으로 바느질 한 과도기적 바느질 방법이 확인되며, 경운박물관 의왕비 원삼에는 하나의 선단을 안감에만 달아 겹바느질 한 사례가 확인된다. 민가 유물은 선단장식을 생략하고 겹 바느질 방식을 채택 하는 등 구성 기법이 더욱 간소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일곱째, 민가 원삼의 특징으로 길과는 다른 색의 깃과 고름을 달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또한 궁중원삼에서 볼 수 없는 색동의 다채로움의 연장선으로 자유로운 배색 연출이라 할 수 있다.

여덟째, 지역특색이 반영된 원삼이다. 이는 민가의 원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로 홍색 선단을 겉에 두른 개성원삼이나 등 청색 옷감을 많이 사용한 전라도 원삼 등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진 원삼이 관찰된다.

4기 원삼은 대부분 1, 2, 3기의 출토유물에 비해 색상 및 보존상태가 양호한 전세유물로 색상이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있다. 원삼의 겉감에 사용된 색으로는 초록색 및 두록색이 18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홍색 2점, 황색 2점, 청색계열 2점, 자적색 1점으로 조사되었다. 이 시기의 원삼에 사용된 직물의 경향은 무문직물이 사라지고 모두 유문직물을 사용하였다. 직물의 종류는 단(緞)과 사(紗)로 단순화되며 무늬의 사용경향도 다양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변하게 된다. 직물의 무늬는 수복문, 도류문, 박쥐문, 화문, 운문 등이 나타난다.

궁중 원삼에 사용된 직물의 종류와 무늬는 구체적으로 봉황운문단, 연화만초문단, 문자화문단, 호로문단, 수복문단, 화접난문단, 수복도류문사, 운문사, 화문갑사, 도류문사 등이 있는데 겉감과 동일한 무늬로 직금이나 부금장식을 더한 원삼이 많다.

이 밖에 국립민속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민가의 혼례복으로 사용하던 다수의 원삼이 있다. 이러한 원삼은 궁중원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금직장식 대신 소량의 금박으로 장식하거나 소매에 색동을 많이 달아 다채로움을 더했다. 또한 길이가 짧은 편이며, 직물사용에 있어서도 갑사와 숙고사 등 화문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무늬도 수・복(壽・福), 석류(石榴), 복숭아, 불수(佛手) 등으로 집약된다.

이처럼 4기에 해당하는 조선 말기와 근대 원삼에 사용된 직물의 경향은 무문직물이 거의 없이 모두 유문직물을 사용하였으며, 직물의 종류가 단과 사로 집약되며 그 비율이 각각 50:50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직물의 무늬 또한 일정한 유행 패턴으로 단순화되는데 대표적으로 수복문, 도류문, 박쥐문, 화문, 운문 등이 나타난다.

Ⅳ. 종합적 시기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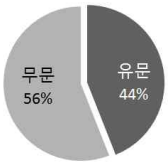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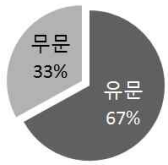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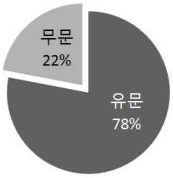
문헌과 유물고찰을 통해 종합적으로 원삼을 분류한 결과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기는 원삼의 '발생기', 2기는 '과도기', 3기는 '발전기' 그리고 4기는 원삼의 '확대기'란 특징으로 대별되었다. 문헌고찰을 통해 당시 사용되었던 원삼의 명칭을 알 수 있으며, 문헌고찰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원삼의 조형특성은 각 시대의 유물을 대입하여 고찰한 결과 시기별 특징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원삼의 발생기인 조선 초기에는 단령형 원삼이 착용되다가 비교적 짧은 기간인 과도기를 거치며 원삼형태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된다. 원삼의 발전기인 3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길며, 확대기인 4기에 정형화된 원삼은 특별히 궁중양식과 민가양식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1기는 원삼의 발생기로 임진왜란 발발 이전인 15세기부터 16세기에 해당한다. 발생기 원삼은 조선 초 단령형 원삼이라는 형태적 특징을 지닌다. 이를 뒷받침하는 문헌적 근거로 양성지(1415~1482년)의 『눌재집(訥齋集)』에서 '양반 부녀자들이 원삼이라는 것을 지어입고 홍배를 달아 입었으며 백주대도를 활보하여도 괴이하다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15세기에 이미 원삼이라는 용어가 일반에 사용되었고 양반 부녀자들 사이에서 홍배 단 원삼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산군 11년(1505)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이때부터 사라능단(紗羅綾緞)의 값이 뛰어 올랐으로 조사(朝士)로서 가난하여 살 수 없는 자는 여자의 옷으로 단령(團領)을 만드니, 조하(朝賀)・조참(朝參) 때이면 반 너머가 다 여자의 원삼(圓衫)이었다.'라고 하여 가난한 선비로 하여금 여자의 원삼으로 남자의 단령을 만들어 입은 기록이 나타난다. 이 내용은 여자의 원삼과 남자의 단령이 옷감이 아닌 형태의 유사성을 추정케 한다. 원삼의 구성상 후대에 나타나는 대금형 깃의 원삼으

로는 단령을 만들기가 어렵지만 '여성단령'이라 불러 왔던 유물과 같이 교임형태의 단령형 깃을 가진 형태의 원삼이었기 때문에 손쉽게 변형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16세기 초 원삼의 형태는 대금형 맞깃이 아닌 단령형 원삼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16세기인 1572년 12월 24일 유희춘의『미암일기(眉巖日記)』에 '아청단자원삼(鴉靑緞子圓衫)'의 기록으로 사대부 부인이 원삼을 입었으며 옷감은 짙은 청색의 단직물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출토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석남동 무연고묘 단령, 파평윤씨, 의인박씨, 장기정씨, 죽산이씨, 평산신씨의 단령형원삼은 모두 아청색과 유사한 짙은 색의 염료가 선명히 남아있으며 옷감 역시 단직물이므로 문헌 내용과 부합된다. 원삼의 초기 형태를 지닌 발생기의 원삼의 조형특징은 깃 모양이 단령과 유사하며 여러 겹의 접은 무와 직배래의 통수형 소매를 접어 한삼을 달았다. 전단후장형(前短後長形)과 홍배가 부착된 유물도 여러 점 발견된다. 대대(大帶)가 포함되며, 고름이나 무, 치수 등 동시대의 남성 단령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 여성의 표의(表衣)로 조선 초기 대표적인 예복 중 하나로 평가된다. 발생기 원삼에 사용된 소재는 면직물, 견직물 등 다양한 종류의 직물이 사용되었으며 무늬가 없는 무문직물(無紋織物)의 사용비율도 높았으며 연화문, 운문, 봉황문 등 다양한 무늬의 유문직물(有紋織物)이 사용되었다.

2기는 원삼의 과도기로 17세기 초~중반에 해당하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다. 임진 병자 양난을 겪으며 조선사회는 복식유형에 있어서도 큰 전환기를 맞이하는데 과도기 원삼에서는 독특한 형태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17세기 초반에 나타나는 단령과 원삼의

〈표 7〉 원삼의 종합적 시기구분

구 분	시기	명칭	특 징				
			조형성	색상	직물종류	직물무늬의 유무와 종류	
1기 발생기	15C~16C	단삼(團衫) 원삼(圓衫)	단령형 원삼	아청 대홍 초록 등	면직물 견직물 등		연꽃, 구름, 봉황 등
2기 과도기	17C초반 ~ 17C중반		복합형 원삼	푸른색 등	토주, 운문단, 운보문단, 소화문단, 깁, 사, 금선단 등		구름, 보배, 꽃 등
3기 발전기	17C후반 ~ 19C전반	원삼(圓衫)	안정형 원삼 (전형적인 원삼으로정착)	초록 등	견직물 (緞, 수복도류불수문단, 紗)직금 등		연꽃,봉황,구름,도류불수, 壽자, 호로,박쥐 등
4기 확대기	19C후반 ~ 20C	원삼(圓衫)	정형화된 원삼 (궁중과 민가양식으로 원삼의이분화)	아청 녹색 홍색 황색	견직물 (緞, 紗) 광사 등		수복문자, 도류, 박쥐, 연꽃, 구름 등

요소를 동시에 지닌 복합형 원삼이 그것이다. 이 시기의 문헌 자료로 1600년『의인왕후 빈전혼전도감의궤(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에는 "外梓宮所用(외재궁소용)의 大紅廣紗(대홍광사) 元衫(원삼) 壹(일)"이라는 기록이 있어, 대홍색 원삼이 왕비의 상장례(喪葬禮)에 사용되었던 의례복임을 알 수 있다. 1627년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를 비롯한 여러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 기록된 옷감의 종류와 소요량 및 용도는 단삼과 원삼이 동일한 복식이며, 17세기 초반까지 원삼의 명칭이 단삼과 혼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기인 과도기 원삼의 조형특징은 단령형 원삼에서 전형적인 원삼으로 변화되는 직전의 단계로 주로 깃에는 단령의 요소가 소매 및 무와 도련에는 원삼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단령형 깃은 교임과 둥근 맞깃으로 나타나고, 여러 겹 접은 무의 형태가 차츰 변하여 사라지며, 소매모양도 통수에서 대수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는 등 형태면에서 여러 유형이 공존하는 원삼의 다양성의 시대를 맞이한다. 전주이씨(1663년) 원삼부터 처음으로 색동소매가 출현한다.

3기는 원삼의 발전기로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해당한다. 17세기 후반부터는 원삼이 전형적인 조선시대 형태로 자리를 잡아 과도기의 혼동이 사라지고 안정형 원삼이 등장하여 본격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 발전기 원삼의 조형특징은 과도기의 특징인 단령형 깃이 대금형 배자깃으로 바뀌고, 통수형 소매는 두리소매로 전환되며 색동이 달렸다. 또한 불완전한 무의 형태가 사라지며 전단후장형의 양식이 자리를 잡는다. 또한 옆선과 도련이 곡선형으로 3기의 발전기 원삼만의 확실한 조형특징을 갖추었다. 또한 구성법에 있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가 생긴다. 그것은 2기까지는 홑옷이던 원삼이 3기에서는 겹옷의 형태로 등장하는 점인데 이는 별도의 받침옷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원삼착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화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발전기 원삼의 직물사용 경향은 유문직물의 비율이 늘어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연꽃무늬가 시문된 견직물의 사용이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4기는 원삼의 확대기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의 조선말기, 근현대 원삼에 해당한다. 확대기의 원삼은 앞 시기의 안정화된 원삼의 양식이 좀 더 정형화되고 궁중의 다양한 예복이 원삼으로 집약되어 원삼의 기능이 확대되며, 궁중과 반가에서 주로 예복으로 착용하던 원삼이 민가의 혼례복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 시기의 문헌으로는 왕실의 국혼자료인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와 『궁중볼긔』 등 기록이 풍부한 편이다. 이 시기의 원삼은 원삼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던 발전기와는 달리 매우 정형화된 양상을 띤다. 원삼의 조형특징에 있어 옆선과 도련이 곡선형이던 3기와 달리 직선에 가깝게 변화하는 특징이 나타나며 바느질방법에 있어서도 겉과 안을 겹으로 놓고 바느질하는 방법이 등장한다. 특히 신분에 따라 정해진 틀 안에서 정형성을 띠며 획일화 된다. 확대기에는 국말 복식현상의 하나로 궁중의 다양한 예복의 종류가 원삼으로 일원화 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또한 원삼의 유형이 궁중과 반가에서 예복으로 사용된 궁중원삼과 민가에서 혼례복으로 사용한 민간원삼으로 이분화(二分化)된다. 궁중 및 반가의 원삼은 대금형(對衿形) 깃과 전단후장형의 길, 옆선과 도련안쪽에 선(線)을 둘렀으며 두 줄 색동과 한삼이 달린 대수포의 형태를 하고 있다. 여기에 금직(金織)이나 금박(金箔)으로 장식하여 원삼의 품격과 화려함을 더하였으며 곡선이던 도련이 직선에 가깝게 변화되는 것이 조형적 특징이다. 반면, 민가의 혼례용 원삼은 색동의 수가 늘고 형태와 구성법이 단순해지며 지역적 특색이 더해짐을 볼 수 있다. 확대기 원삼은 대부분 전세유물로 발생기 및 발전기 원삼에 비해 색상과 보존상태가 양호한 점이 특징이다. 확대기 원삼에 사용된 직물은 또한 초기의 다양했던 직물사용 경향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정형화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무문직물이 사라지고 대부분 수복도류불수, 연화, 모란 등의 무늬가 있는 단(緞)직물과 사(紗)직물로 단순화되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여성의 대표적인 예복인 원삼(圓衫)을 연구대상으로 문헌과 유물을 중심으로 그

역사성과 조형성을 고찰하였다. 전형적인 형태의 원삼은 물론 초기형태의 원삼도 연구범위에 포함시켰다. 조선시대의 여러 문헌자료를 통하여 분명 15~16세기에 이미 원삼이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문헌에 나타난 당시의 원삼으로 추정되는 출토유물도 여러 건 조사되었다. 이러한 실증자료와 문헌 자료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보고된 일명 '여성단령'을 원삼의 초기형태인 '단령형 원삼'으로 보았다. 또한 문헌고찰을 통한 원삼의 시기를 구분하고 유물분석 자료를 기준으로 조선시대 원삼의 특징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원삼을 조형특징에 따라 분류하여 문헌자료만으로 부족했던 원삼의 시기구분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즉, 문헌과 유물고찰을 통하여 조선시대 원삼을 크게 4기로 나누어 조선시대 원삼의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고 변천과정을 정리하였다. 1기를 조선시대 원삼의 발생기로 보고 2기 과도기를 거쳐, 3기 발전기를 지나 4기인 확대기로 정착되기까지의 모습을 파노라마처럼 그릴 수 있다. 발생기 원삼은 단령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과도기에는 단령형원삼에 과감한 변화가 생겨 다양한 형태의 원삼이 나타나며, 발전기에는 원삼이 가장 아름다운 조형미를 나타내고 확대기에는 정형화된 원삼이 민가의 혼례복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참고문헌

1) 원삼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시대별 연구경향을 조사하였다. 현재까지 발표된 학위논문은 약 60건, 학술지 논문은 약 36건으로 이 중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약 45건을 정리하였다. 그 외 각 박물관의 출토복식 보고서 및 단행본은 약 20건 내외로 원삼유물이 출토되거나 언급된 도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임현주 (2011), *朝鮮時代 圓衫의 由來와 變遷過程 硏究,*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 3-7.
2) 송미경 (2002), 조선시대 여성 단령(團領)에 관한 연구, *服飾, 52(8),* pp. 151-160.
3) 梁誠之 (1791), *訥齋集,* 卷四, 四十九: 以至兩班婦女号稱圓衫製 以着之加之以着胸背 白晝大都之中牛活不知怪.
4) *朝鮮王朝實錄 燕山君日記* (1498), 국사편찬위원회 편, PDF파일, 燕山 29卷, 4年 6月 15日(庚辰) 1번째 기사, 第十條; 圓衫單長衣, 勿擧行.
5) *朝鮮王朝實錄 燕山君日記* (1505), 국사편찬위원회 편, PDF파일, 燕山 58卷, 11年 6月 13日(병인) 3번째 기사; 自是紗羅綾段, 其價湧貴, 朝士家貧不能貿者, 則以女服造團領, 朝賀、朝參時, 太半皆是女圓衫.
6) 유희춘 (1572), *眉巖日記,* 1572年 12月 24日: 鴉靑緞子圓衫 藍傳通段子裳次.
7) 조선후기 문신이자 주자학의 대가였던 송시열(1607~1689)의 시문집으로 215권 102책으로 구성된 목판본이 있는데 정조 11(1787)에 간행되었으며, 이보다 앞선 숙종 43 (1717)년에『우암집(尤庵集)』이 발간되었다.
8) *宋磁大全, 118권,* 近來婦人婚喪. 借用圓衫 此果合禮耶.
9) 李衡祥 (1990), *國譯 瓶窩集 Ⅱ,* 韓國精神文化硏究院 역, pp. 25-27. 瓶窩集은 1653~1733에 발간되었다.
10) 李縡, *四禮便覽, 권 3,* 喪, 陳襲衣條.
11)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5), *인천석남동 회곽묘 출토 복식,* 인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p. 6.
12) 경기도박물관 (2005), *연안김씨 묘 출토복식,* 용인: 경기도박물관, p. 276.
13) 경기도박물관 (2003),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용인: 경기도박물관, p. 12.
14) Hyunjoo Lim, Hyosook Cho (2011),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Women's Danryeong from the mid Joseon Period,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and Fashion, 11(1),* pp. 85-106.
15) 수원박물관 (2011), *수원 이의동 안동김씨 묘 출토 복식 조사보고서,* 경기: 수원박물관, p. 98.
16) 필자 촬영일 2011년 4월 11일, 경기도박물관 특별전 조선의 옷매무새 Ⅲ '이승에서의 마지막 치장' 전시기간: 2011. 4. 8~2011. 5. 22 포스터 촬영.
17) 경기도박물관 (2007), *김확 합장묘 출토복식,* 용인: 경기도박물관, p. 336.
18) 충북대학교박물관 (2008), *조선시대 여인의 옷,* 충북: 충북대학교박물관, p. 22.
19) 경기도박물관 (2001),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조사보고서 광주고읍 인평대군파 의원군 일가,* 용인: 경기도박물관, pp. 247-248.
20) 문화재청 (2006),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2 복식·자수편,* 대전: 문화재청, p. 63.
21) "혼구잡화" (1935. 2. 6), 대한매일신보.
22) 최석로 (1994), *사진으로 본 조선시대-민족의 사진첩 Ⅲ.* 민족의 전통 멋과 예술 그리고 풍속, 서울: 서문당, p. 112.
23) 국립민속박물관 (2011), 모자와 신발 특별전, *머리에서 발끝까지,*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p. 154
24) 경운박물관 (2003), *근세복식과 우리문화,* 서울: 경운박물관, p. 129.
25) 문화재청, *op. cit.,* p. 211.